

## 13장\_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여기는 돌산 공부방 미디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돌산공부방입니다.

서울 종암동에는 진석산(陳石山)이 있습니다. 이 산은 원래 이름없는 석산(石山)이었었죠. 종암동 어느 골목 한 건물, 좁다란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이 산의 이름을 딴 돌산 공부방입니다. 우리 돌산 공부방은 생태수업과 역사수업 같은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소개할 미디어수업이 공부방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들의 시각과 언어로 우리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디어수업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처음 시작되던 날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실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번쩍거리는 카메라를 처음 꺼내 놓으실 때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카메라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쇼 프로그램이나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우리들을 나무라시지만 그건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어른들의 언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것과 달리 뉴스를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 초보 방송인에서 만능 방송인으로

카메라를 만지는 게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 떨어뜨릴까 봐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힘든 것은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보고 있는 우리들조차 무슨 장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곧 삼각대를 이용해서 또렷한 화면을 포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 편집을 통해 흔들리는 장면들을 보기 좋게 연결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과 편집에 자신이 생기자 이제는 이것 저것 정말 마구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디어 선생님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찬찬히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어떤 것을 조사하고 준비할 것인가?*

*어떤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것인가?*

*기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배워야 할 것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마치 매주 하나씩 작은 산을 연달아 넘는 기분이었습니다. 컷 편집을 배우고, 촬영실습을 하고, 그 다음 프리뷰

하는 법을 배우고, 방송을 위한 프리뷰를 배우고, 인터뷰하는 법을 배우고, 취재를 배우고. 그렇게 작은 산을 하나씩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뉴스와 인터뷰 프로그램 제작을 코 앞에 두고 엄청나게 커다란 산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촬영을, 편집을, 그리고 기사를 쓸 수 있고, 앵커도 할 수 있지만, 잘 만든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5 명을 세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집단창작을 하기로 했지만, 집단창작에도 역할분담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미디어선생님께서서는 지시를 하는 대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작정 우기거나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냅다 발차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말다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만들려면 모두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듯 친구들은 사이 좋게 양보하고 토론하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 우리 동네의 문제들 또 우리들의 고민을 담기로 했습니다.

**내 친구의 소중한 꿈은 무엇일까?**

**우리 동네 떡볶이집, No. 1의 비결은?**

오늘은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드는 날입니다. 우리 모듬은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는 대신 놀이터에서 자기만의 꿈을 키우는 4 학년 지연 친구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누가 촬영을 할 것인지, 인터뷰는 누가 할 것인지도 정했습니다. 주인공과 만나기로 한 학교 놀이터로 향하면서 다른 모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모듬은 동네에서 떡볶이가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아주머니를 인터뷰한다고 합니다. 떡볶이 맛의 비결과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게 되셨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떡볶이 아주머니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다른 모듬 아이들이 부러웠지만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지연이의 꿈을 영상에 담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웃을 인터뷰하고 취재하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릴 가치가 있으며, 우리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곳

우리가 촬영기법과 편집, 취재와 제작을 모두 배우자 미디어선생님께서 모든 모듬이 함께 만드는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을 직접 섭외하고 취재해서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모듬과 함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관심은 있지만 접근하기 두렵고 궁금한 곳’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뒷산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두렵고 궁금한

까닭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 때 관리사무소 아저씨들이 언제나 아이들에게 엄하게 주의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섭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와 제작은 언제나 쉽고 재미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섭외를 했고, 취재를 허락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우리가 취재를 하는 동안 내내 무척 친절하게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 아저씨보다 더 무서웠던 관리사무소 아저씨들이 친절하고 재미있는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요즘 우리 돌산 공부방 친구들은 편집작업에 빠져 있습니다. 촬영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편집과 마무리 작업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조금 더 잘 찍었더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영상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돌산 공부방 친구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모두 제작을 통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춰 표현해야 전달이 잘

된다는 것을 배운 것도 큰 성과라고 합니다. 앞으로 돌산 공부방 친구들은  
우리 지역과 이웃의 이야기를 꾸준히 영상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돌산 공부방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지역 공부방어린이를 위한 ‘작은 예술가’ 프로그램 중 종암동 돌산 공부방에서 진행된 미디어교육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